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이강진_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코로나 발생 2개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북 고용 및 사업장 영향 분석^{1)*}

CONTENTS

1.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전 세계가 패닉상태	2
2.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경색, 지역적 편차는 크게 나타남	3
3. 전라북도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경제, 사회적 비용 크게 증가	6
4. 시사점	10

1) 본 이슈브리핑은 국민연금공단 빅데이터부 협조를 받아 작성함

1.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전 세계가 패닉 상태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경제, 사회시스템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

-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는 전 세계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초유의 사태
 - 코로나19의 발원지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으나, 중국 우한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한국,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가간 이동이 금지되고, ILO는 세계 고용자의 81%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여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하는 등 사회·경제 시스템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인명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
 - 전 세계 확진자가 1백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는 확산일로에 있음
 - 미국은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20년 4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에도 피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각국마다 다양한 형태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보건 인프라가 약한 남미와 아프리카로 확산될 시 크나큰 인명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시스템 마비
 - 가장 보편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은 lock-down으로, 자국민들의 이동 제한, 필수 업종 종사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 각국이 lock-down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소비가 급감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고용감축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수급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 추진

- 각국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정책 추진 계획
 - 국가간, 지역간 이동제한의 강도와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모임 금지, 지역 봉쇄 등 초강력 조치에도 '코로나19발 대공황' 공포가 현실화 되어가는 중
 - 미국은 자국민에게 1000 달러 이상 현금지급 등 1.2조 달러 경기 부양책, 영국은 3,300억 파운드 정부보증 대출 추진, 프랑스는 3000억 유로의 은행 대출보증, 독일은 피해기업 세금감면 등 124억 유로 투입, 중국은 1,114억 위안의 기업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상업용 전기료 5% 인하, 일본은 2조 엔 이상을 국민에게 현금지급 검토 등 각국이 코로나19발 경제공황 위기를 타개할 대책 고민
- 우리나라 또한 50조 원(+a)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마련
 - 1단계로 4조 원을 투입, 업종 분야별 긴급지원 대책마련(2.5~2.20발표), 2단계로 16조 원을 투입하여 행정부 등 독자

코로나 발생 2 개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북 고용 및 사업장 영향 분석

적 패키지 지원(2.28일 발표), 3단계로 11.7조 원을 추경 편성을 통해 11.7조 원 확보(3.17 국회 통과), 4단계로 20.5 조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편성(3.19 발표)

- 각국의 '헬리콥터 머니'는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우리나라 경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집행하기 위한 '20년 추경규모는 GDP 대비 0.6%이며, 이를 통해 0.2%~0.3%p 경제성장 효과 기대(IBK 브리프, '20.3)

◎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경제, 사회적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

- 한국은 코로나19에 적극적 대처, 혁신적인 방법의 질병관리 등으로 각국으로부터 모범 사례 국으로 인정받음
 - 정보공개 투명성, 적극적 진단 및 방역, 감염자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를 관리
 - 이러한 적극적 관리는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을 포함한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으며, 방역 매뉴얼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배포, 진단키트 수출, 의료장비 지원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대유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상황임에도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불가피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도 증가, 학생들의 개학 연기 등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소상공인 뿐 아니라 대기업도 기존 인력의 감축, 업체의 폐업 및 휴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2.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경색, 지역적 편차는 크게 나타남

◎ 전국적으로 사업장 가입자 상실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

- 본 이슈브리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및 사업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1월부터 3월말까지의 국민연금 데이터 분석
 - 코로나19의 고용 및 사업장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1월 20일)한 달인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분석(국민연금공단 빅데이터부 협조)
 - '20년 1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전국 분석에서는 1월을 포함하였고 전북지역 분석에서는 확진자가 2월 2일 발생하여 1월을 포함하지 않음
- 국민연금 데이터에 의하면 '20년 1월~3월 동안 사업장 가입자 상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
 -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3개월 동안, 총 상실 건수는 1,545,348건으로 전년 동기 1,436,095건 대비 7.6%(109,253건) 증가

◎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전북은 전 국평균 보다 적은 영향을 받음

- 사업장 가입자 상실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26%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21%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상실 건수 변화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2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순
 -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비중이 높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발 항공편이 중단됨으로써 고용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코로나 발생이 가장 많은 대구와 경북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 6%의 증가율에 그쳤으며, 가입 대비 상실비율도 각각 11%로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은 7% 증가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전북의 상실 건수는 41,214건으로 전년 동기의 38,413건에 비해 7% 증가하여 전국 평균인 8%를 하회하는 수준
 - 전북의 상실 건수인 41,214건은 전 가입자 대비 12%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고용이 크게 악화됨
- 가입 대비 상실비율을 보면 세종시가 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순
 - 세종특별자치시는 전 가입자의 15%가 상실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13%), 강원도(13%), 전라북도를 포함한 5개 자치단체가 12% 수준, 나머지 9개 자치단체는 11% 수준의 가입 대비 상실 비율을 보임

〈 전국 지역별 사업장 자격상실자 수 〉

지역명	2020년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가입 대비 상실 비율
강원도	39,557	35,244	12%	13%
경기도	354,756	323,105	10%	11%
경상남도	83,085	78,231	6%	11%
경상북도	65,230	61,332	6%	11%
광주광역시	33,910	33,178	2%	12%
대구광역시	53,102	48,564	9%	11%
대전광역시	38,555	37,882	2%	11%
부산광역시	81,213	76,174	7%	11%
서울특별시	464,989	441,735	5%	11%
세종특별자치시	9,818	8,108	21%	15%
울산광역시	33,874	29,607	14%	12%
인천광역시	68,298	64,756	5%	11%
전라남도	46,535	42,621	9%	12%
전라북도	41,214	38,413	7%	12%
제주특별자치도	20,793	16,548	26%	13%
충청남도	61,805	56,526	9%	12%
충청북도	41,706	36,460	14%	11%
지역 미분류	6,908	7,611	-9%	
계	1,545,348	1,436,095	8%	

* 출처: 국민연금 내부자료

** 각 년도는 1월~3월을 비교한 것임

코로나 발생 2 개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복 고용 및 사업장 영향 분석

◎ 낮은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자격상실자 비율이 높음

- '20년 1월~3월간 전년 동기 대비 자격상실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의 변화율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총 자격상실자 수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음
 - 전년 동기 대비 10대는 461% 증가한 1,251건, 20대는 18% 증가한 382,281건 이었으며, 고용위기가 발생하였을 시 낮은 연령층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자격상실자 수는 50대가 413,366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382,281 명이었음
 - 10대 자격상실자의 평균 월소득은 114만6,588원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임금을 받았으며, 20대 자격상실자의 평균 월소득은 181만9,551원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 경력이 부족한 10대와 20대의 고용여건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전국 연령별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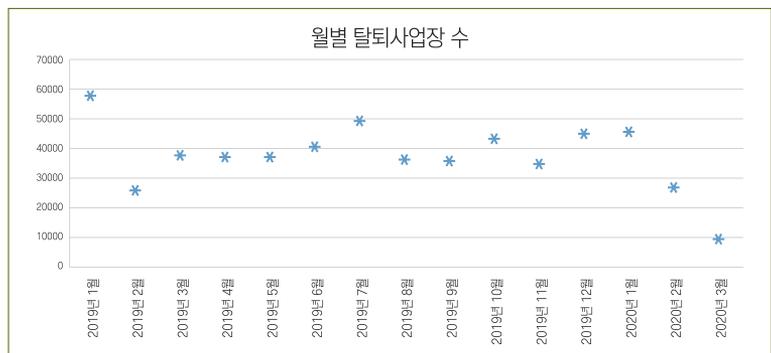
연령대	2020년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평균 월소득
10대	1,251	223	461%	1,146,588
20대	382,281	324,958	18%	1,819,551
30대	372,140	371,129	0%	2,366,597
40대	376,310	361,628	4%	2,442,065
50대	413,366	378,157	9%	2,361,171
계	1,545,348	1,436,095	8%	

* 출처: 국민연금 내부자료

** 각 년도는 1월~3월을 비교한 것임

◎ 전국의 사업장별 탈퇴 현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한 상황

- 사업장 탈퇴 건수는 코로나19 영향 기간인 '20년 1월~3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32.3% 감소함
 - 사업장 현황을 보면, '20년 1월~3월 총 탈퇴 사업장은 82,259개소로 전년 동기 121,565개소에 비해 39,306개소가 오히려 감소함
 - '20년 3월은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은 기간임에도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73.8%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탈퇴 사업장 감소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감
 - 사업장 수가 코로나19 영향기간 동안 오히려 감소한 원인 중 하나는, 경제위기 초기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을 감축하고 사업장을 유지하다가,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휴업 및 폐업으로 이어짐
 -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대규모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지원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 어려운 가운데에도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전라북도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경제, 사회적 비용 크게 증가

◎ 전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 전북은 2월 2일 8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4월 15일)까지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소비심리 경색,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전 산업부문에 걸쳐 경제적 손실 및 고용에 큰 영향
 - 대내외 소비 감소로 인해 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용시장이 크게 경색됨

◎ 전북은 '20년 2월~3월 동안 23,687건의 자격상실 발생,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크게 증가,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자격상실 발생

- 전국 비교기간('20년 1월~3월)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으나, 전북의 코로나19 영향기간('20년 2월~3월) 동안 전북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
 - 전북의 코로나19 영향기간('20년 2월~3월) 동안 전북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건수는 23,687건으로 전년 동기의 22,359건보다 1,331건(5.9%) 증가
- 코로나19 영향기간('20년 2월~3월) 동안 전북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건수를 업종별(대분류)로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순
 - 제조업이 전체의 15.7%인 3,719건, 건설업이 13.2%인 3,131건, 도매 및 소매업이 2,221건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가 증가하였으며,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 또한 62%가 증가하여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를 보임

〈 전라북도 업종별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현황(대분류) 〉

업종 대분류	상실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평균 종사 기간 (년)
	2020년	2019년		
제조업	3,710	3,328	11%	1.38
건설업	3,131	2,773	13%	0.77
도매및소매업	2,221	1,959	13%	1.23
숙박및음식점업	2,065	1,630	27%	0.5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923	1,665	15%	1.58
부동산업및임대업	1,388	2,184	-36%	0.8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04	1,090	10%	1.0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576	476	21%	0.90
운수업	432	369	17%	1.95

코로나 발생 2 개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북 고용 및 사업장 영향 분석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56	317	12%	1.06
교육서비스업	292	301	-3%	1.17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33	194	20%	1.08
농업·임업및어업	213	224	-5%	1.86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9	153	37%	0.99
금융및보험업	169	95	78%	5.1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81	50	62%	1.80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25	30	-17%	1.84
광업	13	9	44%	2.08
미분류	5,445	5,506	-1%	1.49
업종코드미존재	1	3	-67%	0.00
계	23,687	22,356	6%	

* 출처: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각 년도는 2월~3월을 비교한 것임

◎ 업종별(소분류)로 보면 건물임대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요양병원,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순

-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을 업종별(소분류)로 보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1,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양병원,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순
 - '업종별(소분류) 상실현황을 보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이 1,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943건,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이 654건, 한식 일반 음식점업이 648건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대비 상실현황을 보면,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이 28%, 휴양 콘도 운영업은 27%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건물임대업(점포, 자기땅)이 36%,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이 14% 감소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은)의 경우, 상실 건수는 가장 많았으나 코로나19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가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상실 건수가 많은 10대 산업(소분류)에서 자격상실자들의 평균 종사기간은 2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 시 경력이 적은 저숙련 인력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줌

〈 전략북도 업종별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현황(소분류) 〉

업종 소분류	업종 중분류	상실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평균 종사 기간(년)
		2020년	2019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자기땅)	부동산업	1,125	1,770	-36%	0.70
요양병원	보건업	943	769	23%	1.59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654	589	11%	0.55
한식 일반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648	529	22%	0.77
일반의원	보건업	526	437	20%	1.62
휴양 콘도 운영업	숙박업	502	396	27%	0.13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종합건설업	488	503	-3%	1.0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386	302	28%	0.86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업	380	317	20%	0.41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9	373	-14%	1.97

* 출처: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각 년도는 2월~3월을 비교한 것임

◎ 연령대별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을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 큰 영향

-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행한 '20년 2월 이후 3월 말까지 2개월 동안의 고용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층에서 전국 대비 2%~3% 수준의 자격상실자 발생
 - '20년 2월과 3월에 전북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건수는 23,687건으로, 전국 906,910건의 3% 수준
 - 연령별로 보면, 40대 자격상실 건수가 가장 많은 6,261건이었으며, 다음으로 50대(6,220건), 20대(5,855건) 순으로 나타남
 -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자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로 217만3,473원 이었으며, 다음으로 40대, 50대, 20대 순

〈 전북 연령별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현황 〉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상실 건수(전북)	20	5,855	5,331	6,261	6,220	23,687
상실 건수(전국)	785	238,710	226,840	222,077	218,498	906,910
전북 상실 비율	3%	2%	2%	3%	3%	3%
월 소득 평균(원)	1,249,050	1,846,613	2,173,473	2,145,333	2,100,687	

* 출처: 국민연금 내부자료

** '20년 2월~3월(2개월)을 전국과 비교

◎ 종사기간이 짧을수록 자격상실 가능성이 높으며,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을 종사기간으로 보면 2년 미만이 75% 이상을 차지, 종사기간이 짧을수록 자격상실이 많음
 - 전국의 상실 건수를 종사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이 491,504건으로 전체 906,910건의 54.2%를 차지하였고, 1년~2년미만은 189,502건으로 20.9%를 차지
 - 전북의 상실 건수를 종사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이 13,145건으로 전체 23,687건의 55.5%를 차지하였고, 1년~2년미만은 4,781건으로 20.2%를 차지하여 전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전북 종사기간별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현황 〉

종사기간(년)	상실 건수(전국)	상실 건수(전북)	전북 상실 비율
0	491,504	13,145	3%
1	189,502	4,781	3%
2	88,342	2,320	3%
3	43,884	1,067	2%
4	28,660	731	3%
5	17,174	446	3%
6~10	32,932	900	3%
11~15	9,527	191	2%
16~20	3,510	77	2%
21~25	983	16	2%
26~	892	13	1%
계	906,910	23,687	3%

* 출처: 국민연금 내부자료

** 각 년도는 2월~3월을 비교한 것임

코로나 발생 2 개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북 고용 및 사업장 영향 분석

◎ 코로나19 사태에도 전북의 탈퇴 사업장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3% 감소, 전국과 유사한 현상을 보임

• '20년 2월~3월 탈퇴 사업장 수는 1,385개로 전년 동기 대비 44.3% 감소

- 코로나19는 발생 2개월 동안 고용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쳤으나, 휴폐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가장 많은 탈퇴 사업장 수를 기록한 산업은 건설업으로 696개 사업장이 탈퇴하였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업 순
- 전년 동기 대비 탈퇴 사업장 수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년 16개 → '20년 18개),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19년 6개 → '20년 7개)이며, 나머지 산업은 크게 감소하여 전 산업 평균 44.3% 감소

• 전북에서도 전국과 유사하게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탈퇴 사업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 정부에서 대규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기업들이 인지하고 있어, 폐업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기업 및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폐업하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 등으로 매몰비용이 아직은 커, 마지못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

〈 전북 업종별 탈퇴 사업장 현황(대분류) 〉

업종 대분류	2020년	2019년
건설업	696	1,195
숙박및음식점업	172	252
도매및소매업	155	309
제조업	77	152
부동산업및임대업	35	111
협회및단체 ·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2	36
전문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9	29
교육서비스업	18	4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8	16
운수업	18	3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7	25
예술 ·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3	21
하수폐기물처리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7	6
농업 · 임업및어업	4	33
광업	1	3
출판 · 영상 ·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	10
금융및보험업	0	4
전기 · 가스 · 증기및수도사업	0	2
미분류	101	204
업종코드미분류	11	2
계	1,385	2,488

* 출처: 국민연금 내부자료

** 각 년도는 2월~3월을 비교한 것임

◎ 업종별 소분류를 보면 건설, 공사업 부문 사업장 탈퇴 건수가 가장 많음

- '20년 2월~3월 탈퇴 사업장 수가 많은 10대 산업(소분류)에는 공사, 건설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 일반 음식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도 포함됨
 - 탈퇴 사업장 수는 주로 건설 공사업으로, 유리 및 창호 공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이 탈퇴하였으며, 다음으로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순
 - 탈퇴 사업장 수가 많은 10대 산업(소분류)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모두 (-)를 보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문임

〈 전북 업종별 탈퇴 사업장 현황(소분류) 〉

업종 소분류	업종 중분류	2020년	2019년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125	19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118	195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종합건설업	91	124
미장·타일 및 방수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89	171
한식 일반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81	131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52	63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43	99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33	49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자기땅)	부동산업	24	75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24	28

* 출처: 국민연금 내부자료
 ** 각 년도는 2월~3월을 비교한 것임

4. 시사점

◎ 코로나19 발생 2개월,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은 감소, 사업장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

- 코로나 위기로 기업은 고용자를 해고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
 - 코로나19 발생 2개월 동안 전북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은 8% 더 감축 하였으나 탈퇴 사업장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사태 2개월은 기업은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50조원(+a)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정책 지원과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고용안정특별지원사업'과 같은 정책자금에 대한 기대
 - 정부에서 현재까지는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정책지원 시행 예정이며, 이에 대한 소상공인의 기대는 매우 큰 것으로 보임

코로나 발생 2 개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북 고용 및 사업장 영향 분석

-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신속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1만3백여 명의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며,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될 수 있음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에 들어가면 민간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보임

◎ 기업안정자금 지원 타이밍이 중요, 자금지원 속히 집행 필요

- 현재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감축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폐업으로 이어지므로, 정책자금의 조기 집행이 절실
 -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나, 정부, 지자체들의 사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어 지원정책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 현재 상황은 누구를 지원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나 지원 타이밍을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 될 경우 연쇄도산 우려, 정책자금은 기업 유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 기업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기업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
 - 기업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유지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지원방안에 있어서도 임대료 지원, 공과금 지원, 물류비 지원과 같이 기업을 유지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 필요
- 지원정책에 국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필요
 - 기업 지원 및 가계지원 시 국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소통하여 중복성을 최소화 하고, 예산집행이 기업을 유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며 소외계층이 생계유지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체계적 지원 필요



ISSUE BRIEFING
2020. 04. 28 Vol. 218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